

#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

고선희\*

1. 서론
2. 도시빈민 주거공간의 변천사와 드라마 속 ‘달동네’
3. 달동네 표상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 1980년 <달동네>와 1994년 <서울의 달>의 경우
  - 3-1.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자본주의적 욕망
  - 3-2. ‘달동네’의 사회·공간적 분리와 내적 분열의 양상
  - 3-3. 희망의 공간에서 분노와 절망의 공간으로
4.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도시 빈민 주거 공간의 한 형태인 ‘달동네’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 되어온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글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공간은 당대인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사회의 제반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변화하는 표상 공간으로 기능한다.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 표상 작용을 달리 할 뿐 아니라 현실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도시 하층민의 주거공간인 ‘달동네’가 연속극의 주 무대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였다. 1980년의 <달동네>가 방송되기 이전까지는 중산층 이하의 도시인이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역으로 등장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따라서 서울 변두리 고지대의 하층민 주거지를 주 무대로 한 일일연속극 <달동네>의 출현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5.18 광주항쟁과 신군부의 집권 등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오륙십 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킨다. 드라마 <달동네>에서는 “열심히 살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었으며, 이는 변두리 ‘달동네’의 하층민들에서 도심 중산층으로의 계층상승이라는 1980년대 초 한국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통된 욕망과 성공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이른바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드라마’로 열광적 호응을 얻은 것이다.

---

\*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초빙교수

하지만 80년대 말에 이르면 달동네는 더 이상 희망의 공간으로 제시되지 않게 된다. 이는 1987년 6월 시민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갔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남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달동네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축출되어,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우리도 드라마 속의 저들처럼 잘 살 수 있다”던 희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1994년 MBC 주말연속극 <서울의 달>은 달동네 주민의 변화된 인식과 변질된 욕망의 구조를 풍자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서울의 달>은 도시 고지대의 빈민촌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계층상승에의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의 <달동네>에서와 유사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서울의 달>의 달동네 사람들은 제비족, 춤 선생, 꽃뱀 등 결코 ‘보통’의 ‘서민’이 아니며, 주인공 ‘홍식’은 “한탕 크게 성공해 미국으로 튀기” 위해 친구를 속이고 사기결혼도 마다 않는 인물이다. 달동네라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인식도 달라져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 진입해온 실항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던 1980년의 <달동네>에서와 달리, 1994년 <서울의 달>의 달동네 구성원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쫓고 쫓기는 이진투구를 벌인다. 달동네는 더 이상 고향처럼 포근한 안식처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달동네>에서의 달동네가 일상의 행복을 신화화하며 근대화 산업화의 장밋빛 판타지를 생산해낸 공간이었다면, <서울의 달>에서의 달동네는 그러한 판타지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적 공간으로 변화했다. 1980년 <달동네>에서 1994년 <서울의 달>에 이르는 ‘달동네’ 표상의 이러한 변화는 근대화 산업화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었던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빈곤층을 여하히 양산하고 소외시켜 왔으며 그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재현 양상과 그 표상의 변화를 통해 보다 실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달동네, 서민드라마, 표상, 도시빈민, 주거 공간, 신화화, 도시화, <달동네>(1980), <서울의 달>(1994))

## 1. 서론

5·18광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1980년대 초 한국 대중사회에는 <달동네><sup>1)</sup>와 <보통사람들><sup>2)</sup>이라는 두 편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

1) 나연숙 극본 김재형 연출의 일일연속극. 1980년 6월 23일 TBC에서 방송을 시작해 1981년 12월 25일 KBS 1에서 방송종료 김민희, 추송웅, 서승현, 백찬기, 차화연, 이낙훈, 강부자, 노주현, 장미희, 김인문 출연. 서울의 변두리 고지대 마을의

으킨다. <달동네>는 민간 상업방송국인 TBC가 1980년 6월 말부터 방송한 일일연속극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 변두리 산꼭대기 마을에 모여든 사람들의 ‘힘겹지만 희망에 찬 일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11월 14일 신군부가 ‘비리 근절과 새로운 언론 풍토 조성’을 내세운 사상 초유의 ‘언론 통폐합’<sup>3)</sup>을 단행함에 따라, 국영 KBS에 흡수 통합된 TBC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달동네>는 KBS 채널을 통해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계속 방송되어 대중과 만나게 된다. KBS는 이와 관련해 ‘민방 인수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으로 구 TBC의 인기 프로그램을 흡수방영’<sup>4)</sup>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 드라마의 인기가 무시 못할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5공화국 출범에 결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세무서 과장 집을 중심으로 이웃의 시계수리점, 이발소, 떡볶이간, 목욕탕 때밀이, 월부장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얽히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2) 나연숙 극본 최상식 연출. KBS 1에서 1982년 9월 20일~1984년 5월 31일 방송. 황정순, 이순재, 김민자, 송재호, 이영하, 정한용, 유지인, 금보라, 강석우, 한혜숙 출연. 아들 4형제 (섬유수출회사 생산부장인 장남, 소설가 지망생인 둘째, 무역회사 직원인 셋째, 건설회사 직원인 넷째)와 며느리 손주를 거느리고 사는 전 통공예가 박소정 할머니 핵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일연속극으로, 둘째아들의 이혼녀인 연극배우 ‘우희’와 셋째아들의 애인 ‘신애’ 그리고 넷째아들이 사랑하게 되는 순박한 섬치녀 ‘별녀’의 이야기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진정한 가족 관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방송 연출자 출신으로 MBC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창섭은 이 드라마를 “가족 간의 효와 우애를 강조하는 드라마”인 동시에 “집안에서의 여성의 발언권이 무척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남성들 주장에 동조하는 여성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이 저변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드라마로 평가한 바 있다. (최창섭, 『TV드라마의 바람직한 인간상』, 『미디어 핵우산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진한엠엔비, 2007, 114쪽)
- 3) 전국 64개 신문·방송·통신사 중 신문사 11개(중앙지 1, 경제지 2, 지방지 8), 방송사 27개(중앙 3, 지방 3, MBC 계열 21),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매체를 통폐합. 이로 인해 방송은 MBC·KBS 체제의 공영방송의 구조로 재편되었다. 동아방송(DBS) 동양방송(TBC)의 민간 지상파 라디오 및 TV와 문화방송(MBC)의 주식 70%를 한국방송공사(KBS)에 넘겨주는 초법적인 조치를 단행해 정권의 방송 지배를 구조화한 것이다.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7년 8월 신문사의 주재기자제도가 부활되고 폐간된 중앙지와 일간지가 다수 복간될 때까지 방송의 이러한 구조는 유지되게 된다.
- 4) 한국방송공사, 『KBS연지 1980년』, 1980, 100쪽.

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동네>는 이른바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서민드라마’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 상경한 어린아이 ‘뚝순이’의 당차고도 지혜로운 언행이 특별한 인기를 모았을 뿐 아니라 “이 드라마에 등장한 장관과 같은 문양의 장관이 ‘달동네 장관’이라는 별명으로 동이 나고”<sup>5)</sup>, “달동네 이름을 딴 음식점과 대폿집이 속출”<sup>6)</sup>할 정도의 신드롬이 일어났다. 당시 제작진은 “서민의 애환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sup>7)</sup>이라며 이 드라마의 대중 설득 코드를 ‘서민’과 ‘리얼리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의 ‘서민’이 어떠한 계층 혹은 집단을 이르는 용어인지는 명확치 않다.<sup>8)</sup> 다만 궁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 
- 5) 『동아일보』, 1983.2.7. 7면.
  - 6) 『동아일보』, 1981.1.8. 12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강남 등지의 아파트촌에 ‘달동네’라는 대폿집이 생겼고 성동역 부근과 현대아파트 단지 등에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생겨나 이 드라마의 인기를 증명해 주고 있다’
  - 7) 『동아일보』, 1981.1.18. 12면.
  - 8) 공적 영역에서 ‘서민’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고법’ (『朝鮮無盡業法規集』, 발행처불명, 1939년, 174쪽)과 ‘국민개생금고법(같은 문서 251쪽)등에서 사용된 예를 볼 때, 당시 ‘서민’은 ‘국민’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국민’이라는 집단구성원 내부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집단을 ‘서민’으로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서민’은 해방 후 ‘서민문학(고창욱, 『朝鮮民謠研究: 原始藝術로서의 民謠一般과 庶民文學으로서의 朝鮮民謠』, 수선사, 1949), ‘서민계급’ (이기홍, 『米穀과 그 價格形態』, 삼협출판사, 1955, 29쪽에 등장하는 ‘서민계급의 미곡소비’) 등으로 보다 폭넓게 사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庶民의 越冬: 특혜와 부패: 의혹을 간직한 채 궁핍에 떠는 庶民經濟 (김영록, 『思想界』 11, 사상계사, 1964. 76-79쪽), 「庶民의 過少欲求 (林燴燮, 『靑脈』 2, 3, 청맥사, 1965), 「그래도 庶民은 산다: 韓國의 庶民像 (鄭明煥, 『思想界』 14, 6, 1966. 309-311쪽) 등에서 ‘서민’은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중산층이하, 권력과는 거리가 먼 대다수 구성원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즈음부터 ‘서민’은 ‘저소득층’과도 일정하게 구분되는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국가주도의 공동주택 건설이 시작되면서 ‘서민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1969년 국회가 ‘불량건물 개량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을 하는 한편, ‘서민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을 한 문서 (『국회공보 제69회 제1호, 국회, 1969, 3쪽) 및 1972년 내무부의 ‘서민아파트건립추진’ 관련 문서 (『韓國都市年鑑, 내무부, 1972, 210쪽)에 따르면, ‘서민’은 빈곤층과는 구분되며 오히려 중산층 일부를 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소구하는 ‘서민’이란 중산층으로의 계층상승에 대한 강력한 욕구 지향성을 지닌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인의 욕망과 성공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드라마 속 장편문양을 따라 자신의 집을 꾸민 시청자가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달동네>의 ‘달동네’는 머잖은 미래에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되는 보통사람들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KBS는 <달동네> 종영 이듬해인 1982년 9월 <달동네>의 작가를 재기용한 새 일일연속극 <보통사람들><sup>9)</sup>을 방영하기 시작한다. <달동네>에서와 달리 번듯한 양옥집 세트를 주 무대로 도시 중산층의 일상을 펼쳐나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서민’의 내포와 외연은 중산층을 아우르는 것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 네 차례의 연장결정을 통해 1984년 5월까지 무려 3년간 방송된 이 드라마는 “그게 어디 보통사람들 이야기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로

---

함하는 의미로 확장, 변화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서민경제’, ‘서민의 애환’ 등 ‘서민’이라는 말이 보다 대중적인 일상 용어로 사용되게 된다. (“서민만이 서민의 애환을 안다”, 『民主長征: 李哲承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 石李哲承黨首推戴委員會 編, 1974. 98쪽 참조) 1975년 대한주택공사가 강남권 개발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소득층 주택’을 별도로 기획 설계하고 있었던 예를 볼 때 (『연간주택』, 대한주택공사 편, 1975, 27쪽), 드라마 <달동네>가 방송된 시기에도 ‘서민’이란 경제적 빈곤층인 ‘하층민’과도 일정 부분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서민’이 명확하게 어떠한 조건들로 구분되어 호명된 집단 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서민’이란 무엇보다 경제력(즉 소득수준)에 있어 상대적 빈곤층이며 어떠한 특권이나 직위도 지니고 있지 못한 집단이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서민드라마’라는 용어는 1980년 <달동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서민’이라 할 때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현재 방송가에서 ‘서민드라마’라 할 때의 ‘서민’은 보다 저소득층이 주역인 드라마, 즉 중산층 이하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

- 9) 이쉽게도 이 드라마의 영상과 대본 모두가 보존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용한 테잎을 몇 차례씩 재생해 사용하던 시대였으며 3년에 걸쳐 방송된 바 양적 부담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방송사에 드라마 홍보용으로 사용한 몇 컷의 편집영상이 남아있을 뿐이다.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를 사로잡았다.<sup>10)</sup> <달동네>의 시청률을 넘어서는 63%를 기록해, 198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획득한다.<sup>11)</sup> 주지하다시피 당시 텔레비전 9시 뉴스는 ‘땡전뉴스’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국정홍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일일연속극의 시청률은 9시 뉴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보통사람들>에 대한 지배층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을 당시 KBS 사장이 직접 지었으며 네 차례의 방송연장 역시 제작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하달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1970년대 초 텔레비전 드라마가 개인의 삶을 서사화하는 방식으로 민족사를 재현해내며 근대화의 역군으로서의 ‘국민’을 호명하고 있었다면,<sup>13)</sup> 1980년대 초 텔레비전 드라마는 ‘국민’의 다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서민’을 자본주의 산업화의 첩병으로 호출해내는 보다 세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관심은 당시 대중이 이에 적극 호응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도 드라마 속의 저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래는 아

- 
- 10) 『동아일보』, 1983.8.24. 5면. ‘K-TV <보통사람들> 연출자 최상식씨는 보통사람들이 허리띠를 풀러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게 어디 보통사람들이냐는 말을 자주 듣지요.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고 꿈과 이상을 담은 다른 세계입니다. 분명히 <보통사람들>에는 특별한 사람들 즉 개성이 다양한 연기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기는 상황은 보통 이상의 것은 아니지요”
- 11) ‘가장 인기 끈 드라마는 <보통사람들>’, 『동아일보』, 1988.2.2. 13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조사개발원 이 지난 78년부터 87년까지 10년간 서울에서 만 10세 이상 남녀 89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TV시청률조사에 따르면 <보통사람들>이 시청률 63%로 1위를 차지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TBC <야곰레야> 1980. 60.5%. 3위 MBC <수사반장> 1978 60.5%. 4위 TBC (->KBS) <달동네> 1980~81 59.7%. 5위 MBC <사랑과 진실> 1987 56.4%’
- 12) ‘질질 끄는 드라마 보통사람들’, 『동아일보』, 1984.5. 11~12면. ‘네 번이나 종방을 연기했던 <보통사람들>이 다시 5월말로 연기했다고 이 드라마가 막을 내린다는 말이 떠돈 것은 지난 해 여름…… 제작진들은 “또 연기될 지도 모르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 13) <아씨> <여로> 등의 드라마가 대표적 사례. 고선희, 『한국 텔레비전 초기 (1962~1972) 가족드라마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참조

름답다는 환상을 품을 수 있었다.”<sup>14)</sup> “비록 정권이 기획한 드라마였지만 당시 사회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져” 히트할 수 있었다는<sup>15)</sup> 당시 방송인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오락십 퍼센트를 웃도는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에 가까운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이 드라마들이 당대인의 욕망에 얼마나 부응하는 텍스트였는지 알 수 있다. 변두리 ‘달동네’의 하층민들에서 도심 중산층으로의 계층상승은 1980년대 초 한국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통된 욕망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달동네’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80년대 말에 이르면 달동네는 더 이상 희망의 공간으로 표상될 수 없게 된다. 1987년 6월 시민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갔을 뿐 아니라, 강남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달동네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축출되어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우리도 드라마 속의 저들처럼 잘 살 수 있다”던 희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1994년 MBC 주말연속극 <서울의 달>은 이러한 달동네 주민의 변화된 인식과 변질된 욕망의 구조를 풍자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1980년 <달동네>에서와 같이 도시 고지대의 빈민촌을 무대로 계층상승에의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지만, 달동네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다. “서민드라마의

---

14) 주지하다시피 1987년 대선에서의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보통사람’의 가치, 그 이미지가 얼마나 대중의 뇌리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가 입증해준다. 당시 KBS의 구성원이었던 전직 방송인은 “드라마 한 편이 엄청난 시대적 오류를 낳게 된 것”이며 “당시 제작진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였다고 회고한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 출정식에 <보통사람들> 출연진 모두가 초대받아 출연자 전원이 참석하는 일화를 낳기도 했다”고 전한다. (강동순, 『KBS와 권력』, 서교출판사, 2006, 124~126쪽)

15) 강동순, 위의 책, 124쪽. ‘드라마의 제목은 이원홍 KBS사장이 직접 작명했다. 당시 담당 연출자는 <보통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외국영화가 있어서 반대했다고 한다 …… 제작자들의 자존심을 꺾고 밀어붙인 사장의 카피된 제목은 예상 외로 높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부상했다. 비록 정권이 의도한 드라마였지만 <보통사람들>은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과 잘 맞아 떨어져 약 3년간 방송되어 일일극 중 최장수 드라마가 되었다.’

전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던<sup>16)</sup> 것으로 보아 <서울의 달>이 <달동네> 이후 그 장르적 위상이 확고해진 ‘서민드라마’의 맥을 잇는 드라마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달동네>, <보통사람들>이 중산층을 지향하는 혹은 이미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른바 ‘서민’의 주체 형성의 동인이 되고 있었다면, <서울의 달>의 ‘서민’은 근대화 도시화의 ‘낙오자’이며 ‘패배자’임이 명백한 하층민들로, 이들의 욕망은 과거 서민드라마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실제로 옥수동 고지대의 빈민촌에서 촬영되었는<sup>17)</sup> <서울의 달>의 달동네 구성원은 제비족, 춤 선생, 꽃뱀 등 결코 ‘보통’이 아닌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인공 ‘홍식’은 “한탕 크게 성공해 미국으로 튀는 게 목표”인 악한으로 그려진다. <달동네>나 <보통사람들>의 밝고 건전한 서민과는 전혀 다른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형인 것이다. 달동네라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인식도 달라져 있다. 달동네를 떠나 산 아래 도시로 진입하는 것, 즉 근대화 도시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그들 욕망의 핵이며, 따라서 달동네는 더 이상 고향처럼 포근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했던 1980년의 <달동네>에서와 달리 1994년 <서울의 달>의 달동네 구성원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쫓고 쫓기는 이전투구를 벌인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공간은 당대인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동시에 사회의 제반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변화하는 표상 공간으로 기능한다. 재현전화(representation)한 것으로서의 표상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 표상 작용을 달리 하게 되며,<sup>18)</sup> 또한 현실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달동네>의 ‘달동네’와 <서울의 달>의 ‘달동네’ 표상의 변화 양상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우리 삶의 변화와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중요한 문

16) 『경향신문』, 1994.10.16. 21면 ‘감칠맛 나는 대사와 서민들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서민드라마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7) 대본상에는 ‘의정부 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2회) 것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촬영은 옥수동 산동네에서 이루어졌다.

18)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9~20쪽.



화적 표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80년 <달동네>에서 1994년 <서울의 달>에 이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달동네 표상의 변화 양상을 살펴,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 특히 70~80년대 강남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도시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변화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2. 도시빈민 주거공간의 변천사와 드라마 속 달동네

1980년 6월 첫 방송된 <달동네>는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도시 하층민의 집단주거 공간을 드라마의 주 무대로 제시하여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도시 하층민이 연속극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사의 기록적 변화였다. 70년대까지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도시 빈민층이 주역으로 등장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대극이나 농촌을 무대로 한 드라마가 아닌 당대인의 일상을 다루는 텔레비전 현대극의 경우, 이전까지는 도시 중산층 이상 여유로운 계층의 주거 공간이 주 무대였던 것이다.

작가 나연숙은 1983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달동네는 소리 없는 다수를 위한 드라마”였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고자 한” 드라마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9)</sup> 백기완에 따르면 ‘달동네’라는 용어는 이미 1950년대에 그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sup>20)</sup> 그러나 ‘달동네’가 도시 고지대

19) 「30일로 250회를 맞는 보통사람들, 『동아일보』, 1983.7.29. 7면. “달동네는 소리없는 다수를 위한 드라마였어요. 봉천동과 상계동 일대를 자주 가봤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그곳에는 ‘없는 사람들은 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더군요. 거대한 배에 붙은 따개비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과 무수한 안테나를 보고는 문득 소리 없는 다수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20)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재야운동가 백기완 (5)내가 만든 신조어 ‘달동네」, 『경향신문』, 1998.4.20. 25면. “야학운동 하던 50년대 중반 피난민이 몰려 살던 남산 밀터. 어느 겨울 마을을 덮은 하얀 눈 위로 비친 달빛. ‘달동네 소식지’를 만들

하층민의 주거 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화 된 것은 1980년 드라마 <달동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부터였을 뿐 아니라, 이때부터 가난의 상징이던 ‘하꼬방촌’이 긍정적 희망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무대로 ‘달동네’가 등장하고 대중화 되어간 역사는 도시 재개발의 과정과 매우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재개발 정책의 성격과 그 결과는 달동네 표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도시 서울의 빈민 집단 주거공간으로서의 달동네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대대적 이농과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 주거문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실향민들은 도심의 산비탈이나 하천변, 혹은 시 외곽의 국공유지 등 유휴지에 판자촌을 조성했고, 정부는 국공유지 무단점거를 묵인함으로써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또한 1970년을 전후해 정부는 국공유지에 대한 ‘계획적인’ 점유를 유도하는 집단 재 정착지 조성과 철거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빈민들에게 무허가 정착지는 값싼 주거지임과 동시에 생존의 공동체였다. 농촌의 이웃관계가 지속되는 공동체이자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의 기착지가 되어준 것이다.<sup>21)</sup> 1980년의 드라마 <달동네>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 종전에 시 외곽에 위치하던 무허가 정착지가 오히려 개발의 요지가 된다. 신림동, 봉천동 등 대표적인 달동네도 우선적 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산꼭대기 판자촌들이 대대적으로 아파트단지로 탈바꿈되게 된다. 그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게 되자 정부는 기존의 공영개발 전략을 민영화 전략으로 급선회한다. 가옥주

---

었다. 한글학회에서도 인정한 나의 조어. 지금은 달동네 하면 허름한 판잣집이 물려있는 신동네를 말한다든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당시만 해도 일본말로 ‘하꼬방 동네’라 불리던 곳.....이후 달동네라는 말은 점점 퍼져갔고 특히 1970년대 텔레비전에서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된 후 더욱 일반화 되었다. 달동네라는 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지난해(1997) 한글학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21) 남원석, 「도시 주민 주거지의 공간적 재편과 함의」, 『문화과학』 39호, 2004, 86쪽.

와 건설회사가 함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합동재개발사업’의 형태로 외형상 자율적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해외건설업 침체에 따른 유희자본 활용처를 찾고 있던 건설업계와 정부의 요구가 부합된 결과<sup>22)</sup>라는 지적도 있다.

도시재개발에 따른 갈등은 70년대 들면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극적으로 폭발했던 것이 최초의 도시 빈민 항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1970년 ‘광주대단지사건’이었다.<sup>23)</sup> 그러나 도시 빈민의 저항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80년대부터다.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강제철거와 강제이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80년대 내내 끊이지 않았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로 구성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세입자 및 재개발 반대 주민들 간의 대립은 공동체의 극렬한 분열을 가져왔다. 1994년 <서울의 달>에서 달동네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그들끼리 속고 속이는 이진투구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들의 대립은 주민과의 직접적 마찰을 회피한 정부와의 대리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정부의 무리한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이어져 80년대 후반 도시 빈민 항쟁을 극에 달한다. 서울이 88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세입자와 재개발 추진위 사이의 충돌은 더욱 과격화 되어갔다.<sup>24)</sup> 빈부차이와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 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강

22) 장세훈, 『서울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정책의 전개 과정』,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 1994, 54쪽.

23) 김원,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294쪽.

‘1970년 9월 경기도 고양군에서 무허가 주택의 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경찰 간의 투석전, 같은 해 10월 서울 상산동 지구 주민 200여명의 무허가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시청 앞 시위, 같은 해 11월 영등포구 내 무허가 판자촌 철거에 대항한 주민 2천여 명의 투석전, 그리고 1971년 부평시장에서 벌어진 400여 노점상인들의 철거반대 폭동 등이 ‘감추어진 도시폭동들’이다.’

24) 이 시기 양상은 <상계동 올림픽>(김동원 감독, 단편영화, 27분, 1988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에 오는 외국 손님들에게 가난한 서울의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도시미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달동네 재개발사업’으로 상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 200여 곳의 달동네 세입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까지 동원된 폭력이 가해진 ‘86년 서울 상계동 철거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남사람과 강북사람의 위계화도 이 시기부터 발단된다.

1987년 6월 시민혁명의 성공 이후, 개발 후유증과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민주화 바람과 당국의 규제완화로 방송에서도 정치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고발성, 폭로성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된다. 산업개발 후유증을 다룬 <지포리에서 생긴 일> <침묵의 도시> 등과, 재개발 정책의 파행으로 인한 철거민 실태와 도시 빈민의 표류상을 그린 <서러운 땅> <철수의 꿈>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 사회고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철수의 꿈>의 경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 평가 시기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방송 일정이 조정되고,<sup>25)</sup> 해방 후 50년간 한국 현대사와 땅의 역사를 배경으로 빈부 격차의 현실을 다루려 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땅>은 “국민 상호 간의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사과 명령을 받아 결국 15회로 조기 종영되는 등 여전히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 한편에서 여전히 가난하지만 밝고 살아가는 희망에 찬 사람들의 주거지로 ‘달동네’의 삶을 재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방송되고 있었다. 일례로 1988년 KBS 드라마 <은혜의 땅>은 ‘달동네 한 가정의 정직한 삶을 통한 가족 간의 연대감과,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눌 줄 아는 소박한 가치관’을 그리는 드라마로 호평되고 있었다.<sup>26)</sup> 반면, 같은 해 방송된 <당추동 사람들>의 경우엔 ‘달동네에 미모의 아가씨가 이주해 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드라마’로 ‘결핍하면 여주인공의 옷을 벗기거나 외설스런 대사 욕설까지 마구 노출해 웃기기보다는 치졸함을 느끼게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sup>27)</sup> 이는 <달동네>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의 세부장르로 자리잡아온 ‘서민드라마’의 전통적 흐름을 다분히 위배한 것이

25) 정영희, 『한국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41쪽.

26) 윤혁민 작, 김연진 연출 ‘달동네의 한 가정을 무대로 서민들의 훈훈한 인정을 그린 드라마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가족 지키기에 급급한 달동네 한 가정의 정직한 삶을 통해 가족 간의 연대감,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눌 줄 아는 소박한 가치관을 그린 인정극’이라 소개되고 있다. (『경향신문』, 1988.10.7.)

27) 『경향신문』, 1989.11.6.16면.

었다. 80년대 초 달동네의 건설합과는 거리가 먼 <당추동 사람들>의 ‘치졸함’은 서민드라마의 계몽성을 벗어나기 위한 대중서사물 특유의 웃음코드였을 수도 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문민정부 출범 2년차인 1994년에는 또 다른 서민드라마 <서울의 달>이 출현한다. 달동네라는 도시 빈민의 주거공간을 주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1980년 <달동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체비족’으로 강남 부유층 여성과의 사기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서민드라마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공영방송에서 거부당해 다른 방송사에서 하게 되었다”는 작가 김운경의 회고<sup>28)</sup>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 드라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80년대 초 <달동네>나 <보통사람들>과는 상반된 의도로 만들어진 드라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평균 40%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어이없는 사회풍자 대히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공직자 비리가 판친 한 해의 사회현실을 풍자”<sup>29)</sup> 등 당시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이 드라마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요인의 풍자적 저항성에 있다. 80년대 초 <달동네>가 계몽적인 내용임에도 당시 대중에게 ‘서민적’ 코드로 주목받았던 것과는 달리 풍자적이고 저항적인 것이 1994년의 ‘서민’과 만날 수 있는 대중서사의 코드였던 것이다. 그만큼 <서울의 달>에서의 달동네와 80년대 초 <달동네>에서의 달동네는 그만큼 다르게 재현되고 있었으며, 달동네 표상의 그러한 변화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일어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기로 한다.<sup>30)</sup>

28) “너무 어두운 모습을 그리는데다 체비족이 주인공이라는 각본 때문에 KBS에서 거절당하고 배우 캐스팅도 그리 쉽지않았던 드라마라고 합니다.(작가 김운경) 결국 수위를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MBC에서 방영하게 되었는데……”

<http://blog.naver.com/kirk2580/80015099136>

<한지붕 세가족>(1988) <서울뚝배기>(1990) <형>(1992) <서울의 달>(1994) <옥이이모>(1995) <파랑새는 있다>(1997) 등을 쓴 김운경 작가는 한국방송계에서 드물게 ‘친서민적인 작가’로 불리고 있다.

29) 『동아일보』, 1994. 12. 31. 21면

### 3. 달동네 표상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 1980년 <달동네>와 1994년 <서울의 달>의 경우

#### 3-1.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자본주의적 욕망

1980년의 달동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 하층민이 아닌 중산층으로의 지향성을 내포하는 ‘서민’들의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었다면, 1994년의 달동네는 자본주의 사회의 낙오자와 패배자들로 이루어진 명백한 하층민의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서울 변두리 고지대의 빈민촌을 주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 <달동네>와 1994년 <서울의 달>의 서사 공간은 유사하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빈민이 양산되어 갔으나 그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의 그늘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질성을 지닌다. 그러나 <달동네>에서는 떠나온 고향과도 같은 훈훈한 인심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당연시하는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는 데 반해, <서울의 달>에서는 공동체적 질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달동네>의 주민들이 부산, 충주, 원주 등 출신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이주민들인 반면, <서울의 달>에서는 주역인 홍식과 춘섭 외 다수 주민의 출신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퇴물제비’와 그에게 춤을 배우는 어리바리 ‘초보제비’, 그리고 제비가 된 홍식과 동업을 하는 ‘꽃뱀’ 미선 등은 1980년 <달동네>에선 존재하지 않던 인물형이며, 동네 슈퍼에서는 퇴물제비 박 선생에게는 “신용불량자라서 라면도 외상으로 줄 수 없다”(47회)고 잘라 말한다.

<달동네>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에서 참기름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웃을 의심하는 등 불신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아내 옥순에게 남

---

30) <보통사람들>의 자료가 전무한 반면 <달동네>의 경우 17회분의 대본이 남아 있고 방송사가 홍보용으로 몇 컷을 편집해둔 짧은 영상이 보존돼 있어, 아쉬우나 당시 드라마의 구체적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달>의 경우엔 총 82회분의 대본과 영상이 온전히 보존돼 있다.

편 배 서방은 “언제부터 서울사람이 됐냐”며 편잔을 준다. “고향 인심”을 강조하며 “변하지 말자”는 남편 말에 아내는 순순히 동의할 뿐 아니라 “내가 또 변하면 당신이 꼭 말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배서방 그러지 말어 글씨 당신 사람 시는데 인정 메말르면 시는 재미 참말 없는 거여! 맛있는 거 맹글면 이웃간에 서로 서로 나눠먹고

옥 순 그것은 예전 우리 고향 인심이나 그런거구유 요새 시방 서울인정은 그런 기 아니라고요

배서방 (O.I.) 아 언제적부텀 서울사람이 되였어 당신은!

옥 순 ……

배서방 고로키 배 차게 빈허지 말어 당신! 당신 빈허갈 적마다 내 가심이 철렁 내려앉어!

옥 순 ……내가 그러키 많이 빈허 가나유?

배서방 (애가 타서) 그리여 내가 애간장이 녹어!

옥 순 ……지가 그럴 적마다 당신이 꼭 찢러서 야길 허유! 낸 내가 워티키 빈허 가는지 모릉께! (15회 13썸)

물론 <서울의 달>에서도 서로 돕는 미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허가 댄스교습소의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집주인 장 영감은 “동네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는 없다”(22회 38썸)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방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일단 봐주자”는 쪽으로 기운다. “제가 지금 방을 비우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어가는 놈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24회 29썸)라는 박 선생의 호소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서 고향을 느끼지 못하며, 서로 합심해 살아가야 할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누가 먼저 이곳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을 뿐이다.

<달동네>에서는 현직 세무공무원인 김 과장 덕에 세 들어 사는 이웃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김 과장이나 배 서방 부부처럼 나이든 어른이 그보다 어린 이웃을 스스럼없이 훈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달>의 집주인인 전직 군인 장 영감은 ‘청렴한 세무공무원’인 <달동네>의 김 과장과 달리

가부장으로서의 권한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그의 조연이나 훈계에는 권위가 없다.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건방진 청년을 계도하려다 주먹질을 하고 그 보상금을 물어주느라 손녀 공부방을 다시 세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아내 눈치 볼 일만 늘어난다.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소개받는다든 조건으로 되 물제비 박 선생과 밀약을 맺고 세든 방에 차린 불법무허가 댄스교습소를 눈감아주는 등 스스로 존경받지 못할 행위를 하기도 한다. 가부장권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달>에서의 달동네는 유사 공동체로서의 결집력을 이미 상당히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반면 1980년 <달동네>의 집주인 김 과장은 매사에 모범이 되는 계몽적 지도자상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달>의 장 영감과 달리 장성한 세 아이들을 거느리고 살며 셋방 식구들 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그의 셋째 아들 ‘동욱’도 가난한 이웃아이들의 야학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배우려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 집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원인 맏형 ‘동혁’은 낡은 버스 한 대를 마을 공터에 끌어들여 주어 그곳을 교실로 사용하게 한다.

<달동네>에서의 ‘공터’가 이토록 계몽적인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달>의 ‘공터’는 지극한 결핍의 공간이며 불안한 욕망들이 부딪히는 장소로 표상되고 있다. 자신을 흠모하는 춘섭과 그 친구 홍식의 일방적 구애작전에 화가 난 영숙은 두 남자를 공터로 불러내 주먹을 날린다. 영숙은 “내가…… 애인할 사람이 없어서 느이 같은 인간들하고 애인해야 되냐?”(12회 45썸)며 분노한다. 하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홍식을

31) 신주진은 김운경의 드라마를 작가론적으로 분석하면서, “해체의 과정에 놓여있는 마을공동체들의 한가운데서 서로 다른 욕망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김운경이 “여전히 공동체 판타지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서 “(김운경 작가가) 현실을 집단적 힘으로 돌파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울의 달>의 경우 현실의 문제를 “집단적 힘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하층민의 삶을 조명하는 데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운경의 <서울뚝배기>나 <한지붕 세가족>과는 달리 <서울의 달>은 ‘공동체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자본주의적 욕망에의 추구가 도시 하층민의 삶을 여하히 파괴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주진, 『29인의 드라마작가를 말한다』, 방송진흥원, 2010, 177쪽.)



사랑하게 된 영숙은 제비 노릇을 하느라 밤늦게야 돌아오는 홍식을 만나고 싶어 공터에서 기다린다. 그러나 홍식은 그녀를 외면하고 기어이 강남 여인과 사기결혼에까지 이른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영숙과 헤어진 홍식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도 바로 그곳이다. 홍식은 공터 입구의 전봇대에 소변을 똬으로써 달동네에 대한 미련, 영숙에 대한 미련을 배설해 버린다.

홍식 (문득 트렁크와 보따리를 내려 놓더니 전봇대 앞에서 바지자크를 내린다.)  
 춘섭 뭐하는 거야 시방……  
 홍식 마지막으로 소변 좀 보고 갈려구……  
 춘섭 거기다 누지 마 입마……거긴 영숙씨가 숨어서 매일 밤 널 기다렸던 장소야  
 홍식 이 전봇대는 내가 이 동네 도착하는 날부터 내 단골이네. 난 여기가 아니면 오줌이 안 나와. (46회 51썸)

달동네 공터에서의 배설 행위는 또한, 발아래의 화려한 도시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산 위 공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부감 쇼트가 이 드라마에서 거의 매 회 사용될 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늦은 밤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는 홍식과 영숙과 춘섭의 시선을 통해, 결핍의 공간인 공터는 곧 욕망의 장소가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든 화려한 그 도시로 진입해 가고자 하는 이중적 욕망을 지니고 있다. 반면 1980년 <달동네>에서는 공터에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는 부감 쇼트를 발견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달동네>가 거의 실내 세트에서의 촬영으로만 이루어진 제작 환경상의 한계에 있을 터이지만, 1994년 <서울의 달>이 방송될 시점과는 달리 1980년대 초의 달동네에서 산 아래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1994년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 과거엔 좀 더 노력하면 곧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계층상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남개발과 도시 재개발 과정을 통해 이미 체험해 버린 '94년 달동네에서의 부감 쇼트는 결핍과 욕망의 혼란스러운 기호로 제시되고 있다. 공터에서의 부감 쇼트는 '달동네' 표상의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각기호로 선택 배치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980년 <달동네>에서도 물론 자본주의적 욕망은 문제시되고 있었다. 김과장 덕에 세 들어 살며 시계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춘배’는 신분을 속이고 부자집 딸과 만난다. 춘배의 모친인 ‘이무기 여사’ 역시 며느리 잘 들여 팔자 고치게 됐다며 아들을 응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서울의 달>에서의 홍식이나 미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와 만나기 위해 동네 세탁소 옷을 빌려 입고 나갔던 춘배는 시내에서 옷 주인과 마주쳐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오히려 세탁소 주인을 걱정하며 스스로의 무능을 자책할 뿐이다.

춘배 (슬프게) 세탁소가 요절이 났을 거예요! 나야 없는 놈이 팔넬레다 당한 일이니까 봉변 당해 마땅하지만 세탁소야 뭘 죄가 있어요! 엄마가 사과를 좀 하시구……(하다 말을 못 있고 고개를 꺾는다)……주제과악 못하구 날뛰다가 당하느니 일찌감치 잘 된 거예요 안 그런 척 했지만요 눈치를 챈 거라구요! 애초 꿈이 컸다구요 부자 사위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던요! 입구 나갈 양복 한 벌이 제대루 없는 놈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구……(다시 목이 뻐다)……나한테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 아들 별 불일 없는 놈이에요 꿈 깨세요

이무기(춘배모) 에미 꿈 깨는 건 문제가 아니여. 니 가슴이 월매 나 이플지 그기 걱정이여 난. 에미가 못한 탓이여 에미가 못한 탓이여!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 탓으로 돌려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1980년대 초까지는 여전히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춘배가 그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드라마에서의 계층상승 욕망은 서사의 중심에서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1994년 <서울의 달>이 사기결혼을 해서라도 계층상승을 이루려는 주인공 ‘홍식’의 욕망이 서사의 마지막까지 핵심적 갈등을 형성해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식도 영숙을 사랑하게 되지만 결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가 자신의 욕망을 포기했을 땐 사랑을 이루기에도 이미 늦은 때였다. 1980년 <달동네>의 춘배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알고 보니 그녀도 공장노동자였고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결국 같은 계층의 남녀가 사랑을 이루게 됨으로써

계층상승의 불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판타지를 1980년대 초 드라마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1994년 <서울의 달>에서 등장인물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은 ‘강남’과 ‘아파트’라는 구체적 표지들로 제시되고 있었다. 홍식과 같은 ‘계비족’이 등장한 것이나 그가 노리는 ‘한탕’도 70~80년대 강남개발로 인한 부동산 폭등과 밀접히 관계돼 있다. 강남개발은 아파트 분양을 떠올리게 하고,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도시의 일원이 되어 비로소 근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달동네 이웃 중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성공하는 건 건설현장 노동자인 상국이 네 뿐이며, 그 역시 “일 년만 고생하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던 맹세와 달리 십년이 넘어서야 겨우 열다섯 평 아파트의 계약금을 마련하게 된다. 기대에 부푼 상국네 모자는 아파트 구경을 나선다. 하지만 수상하게 여긴 경비에 의해 도둑으로 몰리는 수모를 당한다.

경 비 지난달에 도둑도 두 번이나 들었어요... 아줌마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상국모 아들 손 잡고 도둑질하는 여자도 있어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는 거예요?

경 찰 그러니까 얼씬하지 말란 말예요 왜 남의 아파트에서 왔다갔다 해. 상국모 눈물 굳게 참으며 코를 훌쩍 거린다. (13회 36썸)

“얼씬하지 말라”는 경비의 호통이 달동네를 내려와도 쉬이 넘어서기 힘들 계층의 벽을 예상케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벽을 넘어서 보겠다는 욕망은 커져간다. 울며 돌아서는 어머니에게 어린 아들은 “나 아파트 싫어..... 우리 이사 가지 말자.”고 하지만, 상국모는 오히려 “악착같이 돈 모아서 기어이 아파트 가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상국모 (자신에게 다짐하듯) 무슨 소리아... 악착같이 돈 모아서 아파트 가서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구경 오면..... 커피도 끓여주고..... 공부방이..... 어떻게 생겼나..... 욕실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나오나.....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나..... 그런 거 몽

땅…… (복받쳐 운다) 가르쳐 줄 거야……엄마는 그런 사람 오나 안 오나 아파트 창문에서 매일 내다 볼 거야…… 흐흐흐흑…… (13회 37선)

달동네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은 여주인공 영숙의 경우에도 못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해온 지 8년이 된 영숙은, 대학 나온 남자와 결혼이 목표다. “그러다 다 놓치면 어찌냐”는 후배의 조언에, “난 내가 탈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 타는 성격”(16회18선)이라 할 만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영숙에게, 촌놈 춘섭과 건달 홍식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상대였다. 하지만 영숙의 욕망은 홍식의 그것에 비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중학교 졸업 후 상경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마련한 월셋방 보증금을 동거녀가 가로채 달아난 뒤, 사채업자에 쫓기던 홍식은 빚갚음을 하고 재기하기 위해 고향친구 춘섭을 속이는 최악의 방법을 택한다. 홍식은 자신을 그렇게 된 것이 “이 도시 서울 때문”이라고 여긴다. 결국 춘섭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었을 때 “제비족이 되어 크게 한탕 하겠다”며 그는 산 아래 도시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다.

홍식 복수를 거행할거야…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이 김홍식이가 어떤 놈이라는 걸 보여 줄거야. 돈 많은 놈들한테는 돈으로 복수하고 뺨있는 놈들한테는 뺨으로 복수할거야. 너한테도 복수하고 내 자신한테도 복수해 버릴거야.  
(18회 35선)

그가 꿈꾸는 ‘복수’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든 이들을 향해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에까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욕망이,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마저도 결국엔 파멸시키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홍식이 지닌 욕망의 파괴성은 달동네에 흘러든 인간 군상들 중 가장 순박한 인물이며, 드물게도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던 친구 춘섭마저 변화시킨다. 영숙에 대한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맞선 보는 여자마다 “촌스럽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되짜를 놓자 춘섭은 “나도 복수하고 싶다”(18회 45선)며 제비노릇 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하고, 홍식은 그에게 우선 “나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훈계한다.

홍식 너만 양심 있는 줄 아냐. 나도 양심 있어. 하지만 일단 집에서 나올 땐 양심은 때놓고 나오란 말야.

춘섭 알았으니까 고만 혀.

홍식 좋은 사람 되는 건 쉬워. 진짜 어려운 게 나쁜 놈 되는 거야. 가만 있는다고 누가 너 절대 안 가르쳐 준다. 노력해야 돼. 노력! (20회 29썸)

친구 덕에 취직도 하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 장가도 갈 것이라 믿었던 상경 당시 춘섭의 꿈은 빠르게 변질되어 버렸다. 1994년 <서울의 달>의 달동네는 더 이상 고향처럼 따스한 곳도 아니며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판타지의 공간도 아니다. 고향 친구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나쁜 놈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 달동네는 그러한 욕망을 배태하는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 3-2. 달동네의 사회·공간적 분리와 내적 분열의 양상

1980년대 초의 달동네도 빈곤층의 주거지임은 분명했지만 근대화 도시화에 대한 열망이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면서 구성원 내부를 결집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변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서울의 달>에서는 달동네와 산 아래 도시와의 경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그 경계를 넘기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홍식과 춘섭이 어찌다 흘러 들어간 이 마을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카페와 림싸롱과 모텔 등 도시의 음습한 뒷골목과 같은 곳들이다. ‘80년 <달동네>가 마을 내부에 시계포와 이발소 기계지수점 등을 두고 산 아래 마을과 다름없는 일상을 꾸려나가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반면, <서울의 달>에서는 동네 사랑채 같은 구멍가게 규모의 ‘민주슈퍼’가 있을 뿐이며 심지어 마을 내부에 ‘퇴물제비’ 박 선생의 ‘댄스교습소’조차 있어 림싸롱과 모텔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주인공 홍식의 직업이 사기꾼 ‘제비’이기 때문에 서사를 이루는 주요 장소들의 유흥업소들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본주의의 ‘쓰레기’와도 같은 장소들이 아니면 연계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달동네임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 초 <달동네>의 주민들도 산 아래 마을과 달동네를 구별 지어 인

식하고는 있었다. 김 과장 닥 장남 동혁이 장가가던 날 똑순이 아빠 ‘상철’은 “동부세무서 김 과장님 닥 큰 아들에다 사업가 닥 따님 결혼식장이 우에 변두리 예식장?”이라며 “실망”한다. (37회 4썸) 하지만 이웃 ‘이무기’ 여사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있는” 김 과장 닥이 달동네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혼례를 올리는 것이 “본받을 일”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산 아래 도시 사람 못지않은 김 과장 닥과 이웃하여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무기 본들 받아 본들! 과장님 아드님보다 배운 거 적고 가진 것도 변변찮은 내 자식들이 어찌 그러키두 허영에만 들떴는지 에미가 남사시러워! 장가가는 새 신랑이 순덕이네 이발소에서 이발을 안하나……(38회 9썸)

가진 자 배운 자의 검소함을 존중하고 못 가진 자의 허영심을 비판하는 이러한 인식은,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과 허영 탓으로 돌리는 당대의 지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sup>32)</sup> 이는 1994년 <서울의 달>에서 빈곤과 무식은 더 이상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지점이다. <서울의 달> 구성원들의 욕망이 빈부차이에 따른 계층상승에 집중돼 있는 것과는 달리 1980년대 초 <달동네>에서의 갈등은 세대간 갈등과 계급갈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갈등을 문제시하기 보다는 화합을 당연시하는 방식으로 서사화 되고 있었다. 김 과장의 둘째 아들 동철은 지나치게 청렴하여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동안 방황한다.

32) 80년대 초 <달동네>의 구성원은 그래서 자주 계몽의 대상으로 호명되고 있는데, TBC에서 방송되던 이 드라마가 KBS로 옮겨져 방송되면서부터 이 드라마의 계몽성은 더욱 노골화된다. ‘81년 조세의 날에 방송된 135회분에서의 다음 장면은 국정홍보물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동 혁 요즘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남세자들 의식 말예요  
김과장 많이 좋아져 가고 있지!  
동 옥 (웃으며) 남세자 측면도 측면이지만요 세무 공무원의 의식구조도 종래의 타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지요  
김과장 아이구 이 녀석이 무섭게 한 방 때리는구나! (135회 13썸)

“전 아버지처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일에 빛나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구 참 근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뭘니까, 남들처럼 돈을 왕창 버신 것두 아니구 출세를 왕창하신 것두 아니구 만년과장입니다!…… 그러니까……절 보구 아버지 식대루 살란 말씀은 마세요! 전 제 식대루 삽니다!”

(9회 3씬)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겠다”던 동철이 결국 생각해 낸 것이 “조촐하게 생맥주집을 차리겠다”는 것이라 했을 때에도 김 과장은 “공장 애들 푼돈이 나 노리는 장사!”라며 반대한다. “돈 벌겠다는 놈이 이 사정 저 사정 봐가며 장사하냐”며 대들던 동철은(13회 2씬) 결국 부친의 뜻을 따라 조그만 식당을 내게 되는데, 이때도 김 과장은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김과장 한번 해 보겠는데 어찌겠냐 허지만 여길 찾아온 손님들이야 그래두 공장애들이 주가 될 테니까 술 같은 건 취급 안하는 게 어떻겠냐…… 너는 그 아이들도 마시구 즐길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생각하구는 반대다.

동 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버지 고려하겠습니다.

<서울의 달>에서 달동네는 산 아래 도시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었는데, 구성원 스스로도 달동네는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된 그들만의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홍식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의 삶터인 달동네 역시 ‘쓰레기통’이라 여긴다. 동업자 미선이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하자 홍식은 “여자를 좋아할 처지가 아니”라며 거절하며 자신은 “쓰레기통에서 나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홍식 너는 인간 쓰레기야. 물론 나는 너보다 더한 쓰레기고…… 우린 결국 쓰레기통 속에서 만난 거야…… 난 지금 쓰레기통에서 나가고 싶을 뿐이야. 다른 생각은 아무 것도 없어. 내 말 이해가 가나?

미선 ……(일어난다)

홍식 …… (가벼운 한숨)

미선 (글썩이며 목메인다) 한번만 안아줘… 우린 같은 쓰레기잖아…… (27회 5씬)

영숙이 흡묘한 대졸 회사원 ‘승규’가 출근길 카풀을 위해 몇 차례 이들의

마을 입구까지 차를 몰고 왔다가 이내 멀어져 갔을 뿐, 이 드라마 전편을 통해 외부인의 시선으로 달동네를 바라본 경우는 홍식에게 속아 결혼한 강남 부유층 여인 ‘경란’의 경우가 유일하다. 그녀는 집을 나간 홍식을 찾아 달동네까지 왔다가 홍식이 춘섭과 함께 지내던 셋방을 들여다보고 “이럴 수가 없어…… 난 거지하고 결혼한 거야. 나쁜 자식……”(56회 26썸)이라며 분노에 띈다. ‘달동네’는 단지 높은 지대에 혹은 변두리에 위치한 이웃마을이 아니라 가능한 외면하고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경란의 독백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구분과 차별화로 달동네 주민들의 근대화 도시화への 성공적 편입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분리현상과 거주의 공간적 집중화 현상이, 달동네 구성원을 사회·공간적 분리(socio-spatial segregation)<sup>33)</sup>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그들끼리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며, 치고받는다. 동거녀에게 보증금을 가로채인 홍식이 다시 춘섭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제비로 나선 홍식은 첫날부터 꽃뱀 미선에게 속아 밤거리를 팬티바람으로 달리게 된다. 한때는 동업자로 희노애락을 함께 한 미선은 홍식의 배신으로 인해 구속당한다. 결국 홍식의 다시 풀려나게 되지만 미선은 “이제 은퇴했다”며 관계를 끊으려는 홍식에게 “산천초목이 바뀌어도 한 번 선수는 영원한 선수”(70회 7썸)라며 그의 발목을 잡는다. 원하던 대로 강남 부유층 여인을 속이는 데 성공한 홍식의 결혼생활은 미선으로 인해 곧 위기를 맞는다. 미선의 애증은 결국 홍식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외부 세계와 분리된 상태에서의 내부 성원 간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80년대 이후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내부 분열 양상을 닮아있다. 도시재개발 사업을 주민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권력과 개인이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의도하는 바 개발을 이루어내고자 한 결과, 재개발 조합 내부의 이전투구는 심화되고 세입자 신분으로 조합원 자격조차 얻지 못한 대다수 달동네 주민들은 또 다른 달동네를 찾아 떠나야 했던 것이다. 1994년 <서울의 달>에서의 달동네 표상은 1980년 <달동네>

33) 남원석, 「도시 주민 주거지의 공간적 재편과 함의」, 『문화과학』 39호, 2004, 97쪽.



의 달동네에서 그렇게 멀어지고 변화하게 된 것이다.

### 3-3. 희망의 공간에서 분노와 절망의 공간으로

순덕 희망을 갖구 산다는 게 뭔데요? 나도 저 나무에 언젠가는 올라갈 날이 있겠지 하구 쳐다보구 사는 게 희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병권 그러니까 가능한 꿈을 꾸구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시내 중심가에 의자가 열 두 개쯤 되는 이발소를 차릴 수 있겠지 그런 건 열심히 살기에 따라서 가능한 꿈이야. (<달동네> 42회 9씬)

1980년 <달동네>에서는 ‘희망’이 자주 얘기되고 있었다. ‘시내 중심가에 의자가 열 두 개쯤 되는 이발소를 차리는 게 꿈’인 이발사 병권과 약혼녀 순덕은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과장 덕 셋째 동욱이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형 동철이 버스를 마련해 교실로 삼게 해준 것도, 달동네 아이들이 배움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4년 <서울의 달>에서 ‘희망’은 더 이상 자주 말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사랑을 뒤늦게 확인한 홍식과 영숙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떠난 둘만의 여행에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지” 반문한다.

영숙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까……

홍식 모르겠어…… 난

영숙 난 아무래도 행복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될것 같애…

홍식 ……

영숙 홍식씨 앞날이 캄캄한 어둠뿐이고…… 절망밖에 없다고 해도 난…… 그 절망……나누어 가지는 걸로 족해…… (57회 29씬)

비록 사기결혼이었지만, 경란의 어린 아들을 진심으로 돌보게 되면서 홍식은 잠시 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미선의 등장으로 파경에 이른 홍식은 재기를 위해 다시 제비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처음 그 길로 나섰을 때의 야심과 패기를 그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달동네

로 돌아온 홍식에게 남은 건 ‘절망’ 뿐이었다. 탈출구는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고 온 것이다.

홍식은 입버릇처럼 “보이스 비 엠비셔널”을 외치고 있었다. 동업자 미선이 적당히 사기치고 빠지자고 했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영숙을 뿌리치고 달동네를 떠날 때도 그는 “보이스 비 엠비셔널”을 외쳤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야망이란 희망보다는 절규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홍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말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선이 사주한 건달들에게 맞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그는 ‘서울의 달’을 올려다 보며 “보이스 비 엠비셔널”을 외친다. 마지막까지 외친 “보이스 비 엠비셔널”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말하고 있다. 영숙의 말대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건 ‘절망’ 뿐이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까지 ‘사기’를 친다. 영숙에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너한테 돈을 뜯어 저 남쪽 끝 제주도에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보려고 마음먹었었다”는 거짓 고백을 남긴다. 그는 결코 영숙과 ‘절망’을 나누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그의 절망은 끝까지 말해지지 못하였을 만큼 깊은 것이었다.

나는 간다.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해서 나는 떠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게 분의 아니게 사기쳐서 미안하다고 전해다오...(중략)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해다오. 영숙이 너도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라. 보이  
 스비 엠비셔널! 나는 배타고 라스팔마스로 간다! (82회 48썸)

그는 온몸으로 산 아래 도시를 향해 돌진했지만, 결국 달동네에서 몇 발자국도 더 벗어나지 못했다. 쓰레기통 옆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둔 그에게서 발견된 것은 버스 토큰 여섯 개와 천 원짜리 두 장 뿐이었다. 그것은 산 아래 도시가 혹은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홍식에게 허용한 물질의 전부였던 것이다. 1994년 <서울의 달>의 달동네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도시 빈민의 절망적 공간으로 그렇게 표상되고 있었다.

#### 4. 결론

1994년 홍식의 죽음을 끝으로, ‘달동네’는 더 이상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MBC의 인기 서민드라마로 8년간 장수했던 <한 지붕 세 가족>도 <서울의 달>과 같은 해인 1994년 ‘재개발’로 모두 이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종영되었다.<sup>34)</sup> 김운경 작가는 1997년 작 <파랑새는 있다>에서 밤무대 차력사, 전직 창녀, 무명가수, 사기꾼 등 도시 밑바닥 인생들의 비루한 일상을 그려내 <서울의 달>의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었지만,<sup>35)</sup> 이후 도시빈민의 집단 거주지는 일일극이나 주말극 등 텔레비전 연속

34) 동아일보, 1994.11.11. 21면.

‘<한지붕 세 가족> 동네재개발로 13일 종영. 뜻밖한 소시민에환 담아 시청자 사랑 받아.. 86년 11월 9일 첫방송된 이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 동네가 재개발 지구로 확정돼 주민들이 떠나는 장면까지 150여명의 연기자가 거쳐갔으며 8명의 작가, 8명의 연출가가 이끌어왔다.’

35) 김운경 극본 전산 연출로 KBS2TV에서 1997년 4월 26일~1997년 11월 30일 방송된 주말연속극으로, 기획 당시의 제목은 <파랑새는 없다>였던 것이 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파랑새는 있다>로 수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산속에서 수련하던 한 청년이 공중부양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 도시로 내려왔다가 그 스승에게 사기를 당하고 밤무대 차력사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면서 도시 밑바닥의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자살시도를 했다가 그의 도움으로 살아난 전직 창녀는 청년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는 밤무대 가수과 배우지망생에 이끌리는 등 점차 자본주의적인 것들에 몰들어 가게 된다. 그도 결국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 드라마의 소구점은 그러한 결말보다는 주인공 청년이 도시 밑바닥 생활을 통해 애초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과정과 그 풍자성에 있었다. 작가 김운경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사기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풍자해 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사기꾼 백관장 역을 맡았던 텔런트 백윤식은 “시청자들이 사기내용과 그 사기극이 성공할지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97.10.16. 27면)

전직 무술인이며 사기꾼인 백관장은 ‘중년여성을 유혹해 한 톨 챙기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서울의 달>의 홍식의 가까운 미래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홍식은 중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파랑새는 있다>는 <서울의 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는 드라마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극의 주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서울 고지대의 빈민촌이 거의 해체되고 도시가 외관상 말끔하게 정비되었으며<sup>36)</sup>, 이후 도시 빈민의 거주공간이 ‘비닐하우스촌’과 ‘쪽방촌’, ‘지하셋방’ 등으로 분산 변화되어감으로써 빈곤의 재 집중 현상이 은폐되었던<sup>37)</sup>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03년 <옥탑방 고양이>에서도 산동네 다세대와 옥탑방이 주 무대로 등장했으나 이때의 옥탑방은 청년세대의 삶과 사랑의 변화한 양식과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었다. 지하셋방 혹은 반지하방이 아닌 옥탑방은 가난이 문제제되기 보다는 청춘의 독립적 일상을 보장해주는 공간으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옥탑방은 옥상으로 바로 이어져 도심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여유 공간을 제공해 준다. 하늘과 바람 햇빛이 주는 자유의 이미지에 화려한 도시를 굽어보는 부감 쇼트가 더해지면 ‘옥탑방’은 자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옥탑방은 이후 현재까지도 청춘드라마의 단골 무대로 등장하여 자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다. <서울의 달> 이후 도시 고지대의 빈민가가 서사의 주무대로 등장해 중요한 의미를 생산해낸 경우는, 이 드라마 종영 후 십년만인 2004년 SBS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발견해 볼 수 있다. 작은 방이 다다닥 붙어있는 산동네 하숙집이 여주인공을 비롯한 두 명의 주역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빈부차이에 따른 계층 갈등은 드라마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속 달동네에는 떠들썩한 이웃이 없다. 가족도 없다. 가난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내리며 각자의 꿈과 사랑을 찾고 있을 뿐이다.

달동네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의 <달동네>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시기인 1994년의 <서울의 달>은 그런 의

36)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지난 40여 년간 저소득층의 대표적 주거지로, 통상 서울시민의 10% 내외가 거주해왔던 판자촌의 역사가 마무리된다. 판자촌은 1970년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가 1999년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87~88쪽.

37) 남원석, 「도시 주민 주거지의 공간적 재편과 함의, 『문화과학』 39호, 2004, 88쪽.

미에서 더욱 주목되는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두 드라마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과 강남 개발로 대표되는 서울 도시재개발 사업의 역사와 그에 따른 도시 빈민층의 주거 공간 재편의 과정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달동네 표상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 <달동네>의 달동네가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었던 반면 1994년 <서울의 달>은 더 이상 근대화 산업화에 낙오된 패배자들의 집합체로 재현되고 있었으며, 뽕싸롱과 카바레 같은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과 맞닿아 있을 뿐 산 아래 도시와의 뚜렷한 경계 속에 고립되어 있는 달동네는, 구성원끼리 속고 속이며 쫓고 쫓기는 절망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달동네>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판타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서울의 달>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사회구조 속에서의 계층 상승 욕구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불러오는지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판타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달동네>의 달동네는 계몽의 공간으로, <서울의 달>의 달동네는 저항의 공간으로 읽힐 수 있다. 강남 개발과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외관은 말끔해져 갔지만 도시 빈민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달동네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서울의 달>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물제비 춤 선생과 그이 수제자인 초보제비, 그리고 미술선생 등 코믹한 인물들의 일상적 유머 또한 그러한 절망적 현실을 능청스레 풍자하고 있었다.

1980년 <달동네>에서 1994년 <서울의 달>까지 두 편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달동네’ 표상은 이른바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일상의 행복을 신화화하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는 판타지의 공간에서, ‘낙오자의 상처와 패배자의 절망’을 풍자와 해학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판타지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적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표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빈곤층을 여하히 양산하여 격리 소외시켜 왔으며 그들을 삶을 파괴해 왔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며 지금 여기의 문제와 다시 만나고 있다. 달동네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 무대에서 점차 멀어져 갔지만, 주거의 형태가 변화되고 분산되어 은폐돼 있을 뿐 도시빈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나연숙 극본 김재형 연출, <달동네>, TBC, 1980.6.23~1981.12.25.  
방송 영상 일부 및 현존 대본 17회분  
김운경 극본 정인 연출, <서울의 달>, MBC, 1994.1.8.~ 1994.10.16.  
방송 영상 및 대본 총 82회 전회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89.11, 1994.1.~10.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80.6.~1881.12, 1883.2.~1884.5, 1988.2, 1994.1.~12.  
『문화방송 연지』, 문화방송, 1994.  
『KBS연지』, 한국방송공사, 1980, 1981, 1982, 1983.

### 2. 논문과 단행본

- 강동순, 『KBS와 권력』, 서교출판사, 2006, 124~126쪽.  
고선희, 『한국 텔레비전 초기(1962~1972) 가족드라마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김수현, 「저소득층 주거의 성격과 대책」『주택, 도시, 공공성』, 박영사, 2000.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김원,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김중희·김영찬, 「1960~19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10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109~160쪽.  
남원석, 「도시 주민 주거지의 공간적 재편과 함의」『문화과학』39호, 2004, 85~101쪽.  
송미령, 「‘대중기억’과 텍스트 해독에 대한 연구 : MBC주말연속극 ‘서울의 달’ 수용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1994.  
신주진, 『29인의 드라마작가를 말한다』, 방송진흥원, 2010.  
이호준, 「텔레비전 드라마의 즐거움(pleasuer)유형과 수용에 관한 연구 -드라마 ‘서울의 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4.  
이효덕·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6.  
장세훈, 「서울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정책의 전개 과정」,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 1994.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정영희, 『한국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최창섭, 「TV드라마의 바람직한 인간상」, 『미디어 핵우산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진한

엠펜비, 2007.

허활석, 「1980년대 도시빈민운동 성격에 관한 연구-도시재개발 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87.



## Abstract

## Representations of the 'Daldongne [shantytowns]' in TV drama

Ko, Seon-Hee

This is the paper about the representation patterns of 'Daldongne [shantytowns]' in the TV drama and its representation by focusing on the changes, the urban poor in Korea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the life. Especially it reveals how their lives changed gone, i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s the core to the development of Gangnam, Seoul, '70s And '80s, While the reappearance of such historical experiences as a medium to illuminate the role of television drama writing.

Since the early 1980s, 'Daldongne [shantytowns]', the urban poor housing space, was emerged in the Korea TV Drama as the main stage of the soap opera. Previously, it was difficult to explore a television soap opera emerged of the urban poor more than middle-class. Therefore, the highlands in the outskirts of Seoul, the lower class housing, the breakthrough of 'Daldongne [shantytowns]' as a main stage in a daily soap opera was the advent of. TV drama <Daldongne> was enthusiastic response to be obtained as 'a drama give comport to ordinary people, and soothe the sorrow of them. <Daldongne> had been preaching the hope constantly "Live hard, would be better soon". It was met successfully a common desire of Korea and a number of community members in the early 1980s. Their desire was rising hierarchy from Outskirts' shantytowns of the urban underclass to the middle class.

However by the end of the '80s, 'Daldongne [shantytowns]' had not anymore be presented as a space for hope.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cess as the core of Gangnam development, residents were alienated from the shantytowns, and they were driven further impoverished and their lives has become exhausted. The hope "We can live well in the drama like them" will be tightly integrated picture has more than a mirage.

TV drama <The Moon of Seoul>, 1994, was representation to the structure of desire to reproduce and changed perception of the residents of these shantytowns. <The Moon of Seoul>(1994) is similar to <Daldongne>(1980) in the sense that made the narrative desire of rising hierarchy and setting in urban slums at the highlands, but it seems significantly different patterns to achieve their desire to choose a way of life. Their own

perception for 'Daldongne [shantytowns]' in a community space was changed. Members of the shantytowns in the <The Moon of Seoul> lied to deceive each other and chasing pitched fights before being chased. 'Daldongne [shantytowns]' was not any more like a cozy home.

In conclusion, 'Daldongne [shantytowns]' in <Daldongne>(1980) was the space of fantasy which were provided the myth of the rosy hopes for the future, but in <The Moon of Seoul>(1994) it had been changed as the resistance space that cause cracks Fantasy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in. The changes of representations of 'Daldongne [shantytowns]' in TV drama, tell us ultimately, South Korea's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has made a lot poverty out and has been isolated them, destroying their lives. (Key Words : 'Daldongne [shantytowns]', soap opera, 'Ordinary drama', representation, <Daldongne>(1980), <The Moon of Seoul>(1994), urban poor, Industrialization)

위 논문은 2011년 4월 9일 제36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획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 4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